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10월은 성규의 마지막 부분인 67-73장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 베네딕도의 규칙서는 두 번에 걸쳐 편집되었습니다 1차 편집은 머리말에서 제66장까지이며, 67장부터 73장은 2차로 편집된 장들입니다. 나중에 첨가된 장들 안에서 베네딕도 성인께서는 자신의 오랜 수도생활 후에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을 주의 깊게 숙고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완숙한 영적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덧붙여진 이 장들은 앞의 장들과는 강조점도 많이 다릅니다. 전반부는 스승의 규칙서와 카시아누스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후반부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규 67장은 부가된 첫 번째 장으로서, 여행하는 형제들에 대한 장입니다. 베네딕도 성인은 1차 편집의 마지막 장인 66장에서 수도원 안에 가능한 한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 수도승들이 밖으로 나돌아 다닐 필요가 없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수도승이 밖에 나돌아 다니는 것은 영혼에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도승은 항상 봉쇄구역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베네딕도의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67장에서는 여행하는 형제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의 현실을 수용한 것입니다. 원칙이 있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항상 원칙대로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완고하게 원칙만 고수한다면 우리는 참된 수도자라기보다 현실과 괴리된 이상주의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외가 일상화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외가 많으면 공동체 안에 불평과 불만이 팽배하게 되고 결국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베네딕도 성인은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지만, 수도승들이 나아가야 할 이상을 동시에 제시하시며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셨습니다.

이어지는 68장도 베네딕도 성인의 이러한 특징이 매우 잘 드러납니다. 성인은 성규 5장에서 이미 순종에 대해 다루었지만 68장에서 다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승의 규칙의 영향을 받은 5장에서는 지체 없는 순명 (1.4.5.9절), 즉 귀로 듣자마자 즉시 순명해야 할 뿐 아니라

불평 없이 기쁜 마음으로 순명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바실리우스 규칙서 79, 카시아누스의 제도집 4권에서도 무조건적 순명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네딕도 성인은 68장 ‘만일 어떤 형제가 불가능한 일을 명령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서 순종의 주제를 다시 다룹니다. 그는 맹목적 순명이나 기계적인 순명을 요구하지 않고 각 수도승의 양심과 어려움을 표현할 자유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는 베네딕도의 규칙서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인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도 언급하십니다. ‘불가능한 명령을 받았더라도 먼저 온갖 양순함과 순종함을 다하여 받아들이라. 그러나 받은 명령이 자기 힘에 너무 과도하게 보이거든(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숙고한 후, 인내심을 가지고, 적절한(*opportune*) 때에 자기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를 장상에게 말씀드리되 거만하거나, 반항하거나, 반대하는 태도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2-3절)

아퀴나타 뵈크만 수녀는 이 적절한(*opportune*) 이라는 단어에는 삼중의 의미가 있다고 하십니다. 즉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와 상황에 대한 분별을 위해서는 기도와 겸손, 기다림이 필요하며 말할 때는 장상에 대한 존중과 예의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이유를 장상에게 말씀드린 후에도 장상이 자기 명령을 고수하거나 하느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랑으로 순종하라고 권고하십니다(4-5절)

한스 본 발타살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모범만이 이 성규 68장을 정당화한다고 말합니다. 곧 성부는 성자에게 불가능한 것, 십자가 죽음을 명령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가능하면 그 잔을 거두어 달라고 간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부의 뜻에 순종하셨지요. 그래서 ‘수도자가 받은 명령을 실행하기 불가능한 이유를 겸손하게 장상에게 제시한다면 그것은 겟세마니에서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도 만일 아빠스가 자기의 명령을 고수한다면 이에 순종하는 수도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순명에 관한 5장과 68장을 볼 때 무조건적인 순명이라는 이상과, 불가능하게 보이는 명령을 받은 자에게 표현의 기회를 주는 현실감이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나 결과는 장상이 명령하는 대로 맡깁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 믿음에는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순명을 따르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베네딕도 성인은 순명에서, 또 하나의 이상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형제들 안에서의 상호 순명입니다(71,2; 72,6). 사실 형제간 상호 존중과 순명 없이 장상의 순명만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이웃사랑 없이 하느님 사랑을 실현하겠다는 맥락과 같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호 순명은 이상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장상에게 순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후배들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에게 순명하는 이상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일은 상당한 수행이며, 늘 깨어 분별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무엇을 형제들에게 순명해야 하는지는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도생활은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수도생활의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좁은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느님 나라의 동거인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내어 하느님 계명의 길을 달려 봅시다!

1. 규칙서 전체의 요약이며 절정이요 베네딕도 성인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성규 72장을 천천히 외우면서, 마음에 와 닿거나 혹은 마음에 걸리는 구절을 곰곰이 되새기며 숙고하여 봅시다.
2. 나는 장상으로부터 불가능한 일을 명령받은 적이 있는지? 그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태도로 반응하였는지 성찰해 봅시다.

참고 자료: 1. 성베네딕도 규칙서 해설서, 김영희 데오필라

2. 성베네딕도의 규칙, 허성석 3. 성규 강의록. Sr. Aquinata Böckmann

자료제공: 평생교육위원회